

# ‘또 털렸네’...개인정보 반복 유출에 시민 불안 확산

##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노출 행정통합 사칭 범죄 우려도...피싱 등 2차 피해 ‘경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기관 사칭 범죄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각종 행정절차를 빙자한 신종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2024년 문화유산 매매 허가 현황’ 첨부 파일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당 파일에는 문화유산 매매업 관계자 909명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에 나섰다. 민간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CU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는 최근 해커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국내 OTT 플랫폼 ‘티빙’ 역시 신원 미상의 해커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 번호, 이메일, 환불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죄조직은 유출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조합해 실제 공공기관이나 금융 기관, 기업인 것처럼 접근한다.

여기에 문자메시지 링크 접속 유도과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 이체 요구 등의 수법을 결합하면서 피해 규모는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95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41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전남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기 범죄가 14건 발생해 피해액이 3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 광영동 일대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빙자한 공무원 사칭 전화 사제가 접수돼 시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역시 새로운 사칭 범죄의 소재로 악

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특별시 출범 과정에서는 각종 설명회와 주민 의견수렴, 행정절차 안내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나 전화, 인터넷 링크 등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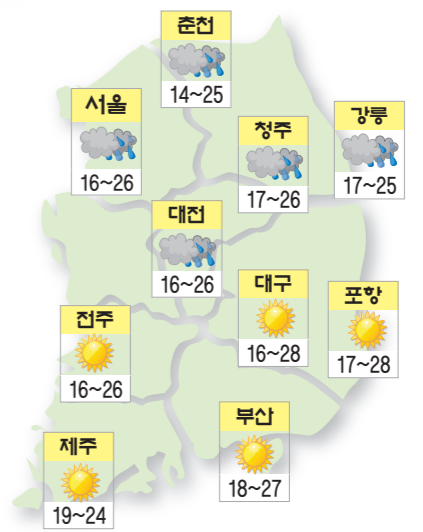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병국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나 지원금 신청, 주민등록 업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일수록 범죄조직이 악용하기 쉽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클릭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5:18	달림	01:49
맑음	19:47	달림	15:26



광주	☀️	16~26
목포	☀️	18~24
여수	☀️	17~26
순천	☀️	16~26
구례	☀️	15~26
광주	☀️	17~25
신도	☀️	17~27
흑산도	☀️	18~23
진남	☀️	16~26
진도	☀️	17~24

목포	미물(고)	10:03 / 23:01
	셀물(저)	03:29 / 13:59
여수	미물(고)	05:15 / 18:07
	셀물(저)	11:31 / --:--

### ‘마약 투약’ 아들 경찰 신고

만년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30대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광주 서부경찰은 10일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낮 12시에 광주 동구 황금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몰래 희석해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

법정 당일 A씨와 통화하던 아버지는 A씨가 희석수술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 이튿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 모습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A씨는 법정 직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을 3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심각한 중증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재범을 저지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 송태영 기자 sty1235@

## ‘전자발찌’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한다

### 경찰-법무부, 12월까지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경찰청과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10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총 42억원을 투입해 ‘위협경보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 정보가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전달됐다. 이 때문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전파와 출동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 접근 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전자발찌를 해

손할 경우에도 정보 전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고, 현장 경찰관 역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가 감지한 위험 상황이 즉시 경찰에 공유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 10일 광주 서구청 1층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직원들이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원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지리산국립공원, 10년간 야생동물 로드킬 ‘최다’

### 542건 발생...‘천은삼거리~도계삼거리’ 구간 40% 다람쥐 피해 많아...멸종위기종 새·수달 등도 희생

전남 구례를 품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전국 국립공원 중 야생동물 로드킬(도 위 동물 충돌사고)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표한 ‘국립공원 야생동물 로드킬 및 생태통로 모니터링 종합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총 2234건(2293개체)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별로는 지리산국립공원이 542건(543개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오대산국립공원 222건, 소백산국립공원 218건, 한려해상국립공원 181건, 내장산국립공원 171건 순이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지리산에 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74건, 무등산국립공원 69건, 월출산국립공원 14건으로 조사됐다.

지리산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동물은 다람쥐로 288건에 달했다. 이어 능구렁이(26건), 청설모(22건), 쇠살모사(21건), 누룩뱀(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등산에서는 다람쥐(34건), 다도해해상에서는

능구렁이(11건), 월출산에서는 유혈목이(4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리산과 다도해해상, 무등산, 월출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새과 담비, 하늘다람쥐, 수달 등 총 23건의 로드킬 피해가 확인돼 생태계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에서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도 지리산 내 도로였다. 군도 12호선 ‘천은삼거리~도계삼거리’ 구간에서는 10년간 221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리산 전체 로드킬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도 861호선 ‘도계삼거리~내령마을’ 구간(63건), 지방도 737호선 ‘도계삼거리~정령치~고기삼거리’ 구간(50건)이 뒤를 이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광주교육청,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 22~26일 접수...8월 11일 시험

광주시교육청은 10일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1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8월 28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

처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25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외국학력 인정자는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해 현장 접수만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7월 31일 누리집에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 전 시험장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 종이팩 자원순환 운동...환경 실천 모델 ‘자리매김’

### 광주지속가능협의회 3년 추진...14교 4845명 참여 2년간 3.8t 수거...일상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기여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종이팩 자원순환 운동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 대표 환경 실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유어시스템에 따르면 학교 기반 종이팩 수거·교육 프로그램인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 학교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자원순환 실천 역량을 키우는 환경교육 플랫폼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종이팩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문산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당시 1개 학교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는 올해 광주지역 14개 학교, 4845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프로젝트 명칭은 한 마을장터에서 종이팩을 들고 캠페인 부스를 찾는 어린이가 ‘종이팩이 불쌍해요!’라고 말한 데서 착안했다. 종이팩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동과 자원순환 교육, 수거 이벤트 등으로 운영된다.

참여 학교에는 종이팩 전용 수거 공간인 ‘종이팩 정거장’이 설치된다.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한 종이팩을 세척·건조한 뒤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배출한다. 학교가 종이팩 분리배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자원순환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



문산초등학교 종이팩 정거장.

사진제공=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강사단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이팩 재활용의 필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며, 희망 학교에는 학부모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팩 구하는 날’ 행사도 운영된다. 일정량 이상의 종이팩이 모이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수집업체(유희망)가 학교를 방문해 직접 수거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모은 종이팩이 재활용되

는 과정을 확인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체험한다.

사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에는 5개 학교에서 1.7t의 종이팩이 수거됐으며, 지난해는 참여 학교가 9곳으로 늘어나면서 2.1t이 수거됐다. 최근 2년간 수거된 종이팩은 총 3.8t에 달한다.

프로젝트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6월 제1회 주민자치회, 계림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 계림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종이팩 자원순환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아파트 단지 내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안내문과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의 전국 평균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88%에 달했지만, 종이팩 재활용률은 14%에 그쳤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임에도 상당수가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초등학교 시절 종이팩을 씻어 학교에 가져오고 캠페인을 운영하며 수집업체에 직접 전달해 본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며 “환경의 가치는 선언이나 기념행사보다 일상 속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구조적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